

# 고흥 녹동현대병원, 취약계층·독거노인 의료 봉사

고흥군 녹동현대병원(정형외과 전문의 백인규 원장)은 고령층의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녹동 의료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녹동현대병원은 지난 3월 21일 '녹동 봉사단'을 구성하고 매주 화요일 외진 마을들을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녹동 봉사단은 현재까지 15회차의 봉사를 통해 1000여명에게 진료 및 건강검진 설명 등의 의료봉사를 제공해왔다.

접안면 평촌마을 추 모(75) 이장은 "시골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원장님과 병원 직원분들이 직접 마을까지 오셔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몸이 아파도 병원까지 가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픈곳도 봐주고 상태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인규 원장은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임해주신



직원 봉사단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는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마을을 선정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아직 방문하지 못한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기쁨,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녹동현대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전남대생들, 광주~여수 77km '봉사' 국토대장정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여수까지 7일 동안 국토대장정에 나섰다. <사진>

50여 명의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안전요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전남대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광주 캠퍼스에서 여수캠퍼스까지 약 77km 거리를 도보로 횡단한다.

발대식은 지난 25일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열렸다.

발대식 직후 대원들은 민주마루에서부터 전남대 정문을 거쳐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까지 5km가량 전남대 국토대장정 깃발을 들고 행군하는

기념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들은 오는 31일 여수 캠퍼스에 도착하기까지 국토 횡단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보성군, 여수시 총 3곳의 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국토대장정을 재개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운영 시에도 하루 최대 30km의 행군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8개 조가 선두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행군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이 동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운영위, 1000만원 기부



조선대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운영위원들이 박물관 환경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26일 총장실에서 열린 발원기금 전달식에는 민영돈 총장, 배상현 박물관장, 장흥수·위경중·정남석·박해군 박물관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지 못했던 정보통신박물관은 2022년 신규 부임한 배상현 관장과 손경중 특임교수의 박물관 활성화 노

력으로 올해 9월 열리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주제전시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2014년 조선대 내에 개관한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은 재미교포 의사이자 수재화가이고, 전남도 최초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인 장항남 박사가 40여년 동안 수집한 4500여점의 정보통신기기를 조선대학교에 기증하며 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정보통신기기 17종을 비롯해 희귀한 정보통신기기를 소장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대 뷰티미용학과 '포토공모전' 대거 입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이 '2023 제1회 K-B.T.S 포토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광주대 뷰티미용학과는 네일 부문에서 임지윤(4년)씨가 국회의원을상을,인다솜(2년)씨가 국가자격증 부문 은상과 켈 아트 평면 부문 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창작아트 부문에서 조수인, 박유신, 임지윤(이상 4년)씨가 나란히 동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북구의회,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4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하정)에 성금1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 -무엇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15 푸리가 식사교실(재) 45 다이노맨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넘버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악귀(재)
1	00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시사기획 창(재)	20 스튜디오 K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방과 후 초능력 30 상상푸리가 푸다 2 45 불편해도 괜찮아 4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쌤미(재) 30 TV 유치원	55 7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 -6시 내고향	00 린다의 신기한 여행 2 15 다이노 파워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이 맛에 산다(재) 35 MBC 특별 생방송 수해 피해 극복 우리 함께 이겨냅니다	00 SBS 오뉴스 50 정말이지 원더풀한 여름정원
6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20 특별생방송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홍길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세컨 하우스 2	00 다큐 M	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00 구해줘! 홈즈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영상앨범 산재	50 아이 러브 스포츠	45 금토드라마 연인:대비기닝	
12	00 KBS 중계식	1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재)	00 문화콘서트 난장	0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확(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시공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곡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숲이 그린 집(재)
0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신이 만든 놀이터, 노르웨이 -피오르가 만든 달(Dal)>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곰끼와 처음 수확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강원 여름 고수 4부 소룡령 여름 블루스>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5 다큐멘터리K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2:50 귀하신 몸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24:0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5 뽀뽀뽀 뽀로로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음6월 10일 丙戌)

<p>36년생 운용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48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60년생 지난날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72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음이 백년 나을 것이다. 84년생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 96년생도 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34, 60</p>	<p>42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4년생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66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만 처리하라. 02년생 진중행동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44, 91</p>
<p>37년생 일련의 점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 49년생 막연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정리해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61년생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다. 73년생 지금이라도 반성시키는 것이 백년 낫다. 85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느니라. 97년생 적합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48, 99</p>	<p>43년생 노력 못지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 준다. 55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67년생 대동 구멍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79년생 풍 심은데 풍 나고 팔심은 데 팔 나느니라. 91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03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으니 속히 조처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8, 94</p>
<p>38년생 용처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50년생 호조건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62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74년생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86년생 큰물에서 합류하게 되니 격동의 형세로다. 98년생 가변적인을 감안하고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40, 95</p>	<p>44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56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지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68년생 다각적인 분석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80년생 맹목적이라면 무리함이 따를 것이다. 92년생 겉과 속이 꼭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04년생 효험이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39, 70</p>
<p>39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동반하고 있다. 51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63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75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87년생 추천하는 기세로 크게 번창하라. 99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79</p>	<p>45년생 만남과 대화 속에서 깊은 해안을 가질 것이다. 57년생 의형까지 신경 쓴다면 부가적 효과가 따른다. 69년생 본인 예상한 것보다 기대를 높여야 적절할 것이다. 81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93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르리라. 05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얼마일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2, 74</p>
<p>40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52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 64년생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백년 낫다. 76년생 평시에 가졌던 의문이 풀리리라. 88년생 본분에 충실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00년생 객관성을 일탈한다면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하강한다. 행운의 숫자 : 45, 87</p>	<p>46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46년생 소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58년생 선택하기에 따라서 영욕과 부침이 운니지가 될 것이다. 70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82년생 예외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 뒤야 뒤떨어진다. 94년생 흥보다 길이 더 많다. 행운의 숫자 : 47, 93</p>
<p>41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볼 수 있으니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 53년생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65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갈목에서 필히 갈등하게 되리라. 77년생 구연으로 인한 염보가 깊으리라. 89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01년생 피해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2, 96</p>	<p>35년생 무리할 필요는 없는 법이니 자신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 하면 그만이다. 47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59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생산적이라. 71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83년생 날일이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95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68</p>